

회장단 동정

윤종용 회장 ITU텔레콤 아시아 2004 기조연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월 6일 오후 부산전시컨벤션 센터(BEXCO)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텔레콤 아시아 2004 대회” 개막식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윤종용 회장 “한국 성장둔화-실업 등 심각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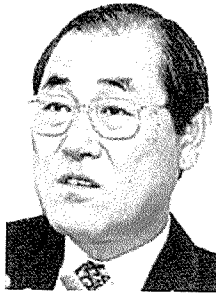
삼성전자 윤종용(尹鍾龍·사진) 부회장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윤 부회장은 지난달 8일 서울대 경영대 국제회의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강연에서 “선진국들이 100~200년 걸린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달성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만달러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90년대 중반 미국 제너럴일렉트로닉(GE)의 잭 웰치 회장은 한국 사람을 ‘21세기의 칭기즈칸’으로 평가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칭기즈칸의 위용을 떠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회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경제 성장 및 수출 성장을 둔화, 실업을 증가, 생산기반의 해외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도 뾰족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성장우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기업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류 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용 회장 “기업에 사회환원 강요는 잘못”



“여러분의 선배들은 미국·영국·일본 등이 100~200년에 걸쳐 이뤄낸 국민소득 1만달러를 90년대 중반까지 불과 30년 만에 달성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만달러의 늪을 벗어나지 못해 참담할 따름입니다.”

삼성전자 윤종용(尹鍾龍·사진)

부회장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대 경영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 둔화, 수출 둔화, 실업을 증가,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성장 우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경제의 주춧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대기업이 한국 산업 발전에 앞장서온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이윤(利潤)의 사회 환원에 대한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기업에 별도의 사회 환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를 뺀 나머지 60~70%를 원자재 구입이나 유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시 쓴다”며 “이런 활동이 모두 사회 환원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에 무리한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IAK 활동

나고야 수출상담회 1억 5,000만달러 상담실적 거뒀

본회(회장 : 윤종용)는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오사카와 나고야 2개 지역에서 국내 총 10개 업체로 개척단을 구성해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총 1억 5,000만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과 향후 3개월 이내 예상되는 계약금액도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 참가업체들은 1개사당 평균 14

개사와의 상담을 가졌으며 KJ컴텍은 나고야에 지사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흥화학은 적수화학과 기술협력을 통한 OEM 생산을, 명준정보통신은 산요로부터 미공개 기술에 대한 상품화 제의를 받는 등 수출상담 이외에 기술협력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지원을 받아 KOTRA 오사카 무역관과 나고야 무역관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본회는 올해 두번째로 11월 29일 부터 도쿄와 후쿠오카 지역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무역상담 및 기술협력 상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국내 ATM업계, 기기·유지보수로 낮아 이증고

국내 현금자동입출기(ATM) 업계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기기 공급가와 유지보수료로 이증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회장 윤종용)는 최근 약 두 달 동안 LG엔시스·노틸러스효성·청호컴넷·FKM 등 국내 ATM 4개사의 유지보수료 원가를 조사한 결과, 대당 월평균 16만4,000원 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은행권이 지급하고 있는 유지보수료는 60~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급가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본회가 상반기에 이들 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ATM 원가 조사에서도 ATM 평균 원가는 2,086만원(VAT 제외)으로 대당 2,000만원 미만에 공급되고 있는 시장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다.

ATM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공급업체 간 과열경쟁과 함께 은행권의 최저가 입찰 관행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저가 요구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원가 이하의 가격구조가 지속될 경우 신제품 개발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현이 어려워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ATM 제조업계는 은행권의 저가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고품질 금융서비스와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과 업체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본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기관과 은행연합회, 은행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가격구조의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본회, 잉여부품 효과적 활용 모색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회가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잉여부품(불용재고)의 효과적 활용에 나섰다.

본회(회장 : 윤종용)는 최근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잉여부품의 보유 여부와 규모를 조사, 이를 소규모로 부품을 구입하는 벤처기업(시제품 개발)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중간상인 및 유통업체가 잉여부품의 10%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업계로부터 사들이고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세트업체로서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손실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해당 잉여부품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들과 효과적으로 연결되면 양 측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최근 잉여부품 매각에 관심을 기울이는 업계는 MP3P, 셋톱박스 업체가 가장 많으며 잉여부품은 주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콘덴서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회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과 경기침체로 인한 제품판매 예측 오류, 생산계획 취소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최소 연평균 5,000억 원 이상의 불용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본회의 잉여부품 줄이기 사업은 구매가의 10%에 넘기던 것을 실거래를 통해 30% 이상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는 최근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잉여부품 처리를 원하는 업체와 이를 구매하려는 벤처기업을 연결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10월 열리는 한국전자전에도 전시부스를 마련해 부대행사로 잉여부품 판매전을 열 예정이다.

본회, 윤동훈 전자산업연구소장 산업포장 수상

본회 윤동훈 전자산업연구소장은 전자산업 통계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일 대전 통계청에서 열리는 '제10회 통계의 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윤소장은 전자산업 통계에 관한 공급과 시장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온라인화, 신뢰성 재고와 수요자 중심화 등을 통해 통계 발전에 공헌해왔다.

국제 특허분쟁 대응 표준 매뉴얼 발표회 개최

본회(회장 : 윤종용)는 최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원천특허를 보유한 외국 선진기업 등의 특허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후원 아래 특허분쟁 대응 및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9월 23일(목), 섬유센터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에 특허공세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허분쟁의 추세가 고액의 로얄티 요구로부터 상대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세관을 이용한 압류조치, 공장폐쇄요구 등 다양하게 분쟁화 되어 가고 있어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산업계로서는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자체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본회는 산업자원부의 지난 6. 25(금) 경제장관간담회에 보고한 「특허분쟁 실태 및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특허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본회는 산업자원부의 지원아래 특허분쟁 대응 경험이 많은 기업의 특허담당 실무부서장, 지적재산권 분야 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으로 작업반(T/F)을 구성하여 우리기업이 외국의 선진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있어 사전예방 방법 및 분쟁발생시 지침이 될 수 있는 국제특허분쟁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으며 이 매뉴얼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물론 특허분쟁을 다루는 실무자에게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제특허분쟁 동향 및 사례
(국제특허분쟁 동향)
 - 특허 로얄티 및 배상액의 고액화
 - 선소송 후협상 경향
 - 일본기업에 의한 제소증가

- 후발 기업진출의 원천봉쇄
- 세관 압류를 통한 분쟁 타결
(국제특허분쟁 사례)
- 폴라로이드사(미)의 즉석카메라 특허분쟁
- TI사(미) 반도체 특허분쟁
- 램버스사(미) 반도체 특허분쟁
- 기타 ITC 특허 분쟁사례 등


② 국제특허분쟁 단계별 대응방안단계

- 특허분쟁 예방 단계
- 경고장 수령단계
- 문제특허 분석단계
- 대응전략 수립 단계
- 경고장 처리 단계
- 협상 및 라이선싱 단계

③ 특허쟁송단계 및 대응방안

- 쟁송절차(능동/수동적)
- 재심사
- 확인소송
- 가치분 소송
- 특허 침해 소송
- ITC 특허분쟁



본회는 매뉴얼의 본격적 보급을 위해 발표회를 시작으로 책자보급은 물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및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하고 있다. 

회원사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주)위너텍시스템

대표자 : **김대희**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48 에이스타워 3차 405

전화 : 02-839-6531 팩스 : 02-839-6573

<http://www.winnertec.co.kr>

DVR



(주)유니온

대표자 : **강대창**

경남 마산시 봉암동 469-10

전화 : 055-250-4000 팩스 : 055-293-1472

<http://www.union.co.kr>

트랜스포머, PCB Ass'y, STROBO UNIT, HIGH VOLTAGE UNIT



쌍신전자통신(주)

대표자 : **장광현**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1

전화 : 041-865-9000 팩스 : 041-865-4229

<http://www.sangshinec.com>

RF FILTER, HIC, THERMISTOR, RESONATOR, VCO 등



(주)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자 : **채현식**

경기 부천 원미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1302호

전화 : 032-234-6200 팩스 : 032-234-6203

<http://www.sitechnology.co.kr>

방사선 센서 및 방사선계측기



(주)거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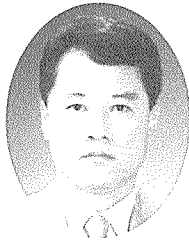
대표자 : **박남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48-2 STX 빌딩

전화 : 02-3460-8200 팩스 : 02-3460-8222

<http://www.cowon.com>

MP3 Player, 무선인터넷 콘텐츠 외



(주)웬시스

대표자 : **이준우**

경기 서울 구로구 오류동 118-2 하나빌딩 지하층

전화 : 02-2685-7300 팩스 : 02-2685-0027

<http://www.4nsys.com>

DVR(Digital Video Recorder/디지털 영상보안감시장비)



삼신씨키스트(주)

대표자 : **민병성**

인천 남동 논현 429-2 남동공단 21B-32

전화 : 032-822-4204 팩스 : 032-822-4209

<http://sshflex.koreasme.com>

인쇄회로기판(FPCB)



(주)세광에너텍

대표자 : **윤두건**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85-7

전화 : 031-760-6817 팩스 : 031-769-8110

<http://skentek.co.kr>

안정기, 램프



에피밸리(주)

대표자 : **유태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51-2

전화 : 031-767-0300 팩스 : 031-767-0316

<http://epivalley.com>

에피웨이퍼, 칩



다들멀티미디어(주)

대표자 : **정연홍**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 미진프라자 14층

전화 : 02-3469-1970 팩스 : 02-3469-1979

<http://www.tamulm.com>

디지털 오디오 반도체